

전주 MICE복합단지 밀그림 완성

시, 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 심의 통과... 내년 상반기 부지 조성·하반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착공 목표

전주종합경기장 일대에 들어설 '전주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의 밀그림이 완성됐다.

전주시는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 20일 열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주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종합경기장 일원 12만231㎡를 전시·회의·문화·창업·쇼핑 등이 융합된 대규모 복합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와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이 공동으로 개발한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시가

그려온 MICE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의 밀그림이 큰 변경 없이 통과되면서, 전주 MICE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MICE 복합단지 개발계획이 통과함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용역을 신속히 추진해 내년 1월 중 실시계획을 작성·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MICE복합단지 조성 관련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시는 지난 19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건축기획에 따른 규모와 배치, 설계공모 지침 등에 대한 건

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시컨벤션 건립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이달 말 계약심의를 거쳐 오는 7월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이후 10월까지 설계 당선작 선정 후 내년 하반기에는 건축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MICE 복합단지 내 전시컨벤션센터 필수 지원시설인 4성급 이상 호텔(200실 규모)과 판매시설 건립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사업자인 롯데쇼핑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이용자의 편의 증대를 위한 단계별 협업을 강화

하고, 복합단지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동시 착공할 계획이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개발조정실장은 "지난 2005년 전북도로부터 수여받아 장기간 지연된 숙원사업의 밀그림이 완성됨에 따라 전주 MICE복합단지 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이 문화·전시·회의·쇼핑·여가를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이자,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전주시 새로운 미래 경제 성장을 이끌 거점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송천2동 자율방재단, 무더위 쉼터 안전점검

폭염 대비 정기적 예찰활동 실시키로

전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은 지난 21일부터 회원 9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혹서기 대비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자율방재단은 관내 무더위 쉼터를 순회하며 폭염시 행동요령, 냉방기 점검, 야외활동 자제, 방방병 예방 방법 홍보 등을 실시하고 무더위 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송천2동 정순우 단장은 "폭염으로부

터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예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주옥 송천2동장은 "올해는 그 어느때보다 폭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무더운 여름부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천2동 자율방재단은 우기 대비 침수 위험지역 점검 및 배수문 주변 정비 등 재난 예방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유기 기자

LA 한인회 청소년단, 전주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19~23일 전주 체류... 한국전문문화고등학교 방문·한옥마을 투어 등 한국 문화 정서 체험

전주시는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LA 한인회 청소년 대표단 30명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에 체류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LA 한인회 청소년 대표단은 이번 전주 방문에서 △한국 고등학교 체험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우주로 1216'(트윈세대 전용공간) △전주월드컵경기장(드론축구 체험) △전통문화 체험 및 한옥마을 투어 등 전주에서의 대한민국 속의 전주를 마음껏 향유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다양한 연수 일정을 소화했다.

먼저 지난 19일 전주에 도착한 대표단은 이튿날인 20일 한국전문문화고등학교를 방문해 또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서예·한국화 그리기와 궁중음식 조리 등의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류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제임스 안 LA 한인회장을 비롯한 LA 한인회 청소년 대표단 30명이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전주에 체류하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체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21일에는 전주시청을 찾아 우범기 전주시장을 만나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 대한 소개를 청취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그간 활발한 국제 교류에 앞장서 온 제임스 안 LA 한인

회장을 전주시 제1호 해외자문관으로 위촉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연수단은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차세대 글로벌 스포츠로 각광 받는 드론축구를 체험하며 전주의 미래산업을 마주했으며, 전주 한벽문화

관에서 마당창극 공연 관람을 끝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배소현 학생(17, Rise Konyang High school)은 "특히 전주에서 최초로 시작돼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드론축구는 미니게임인 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틸 넘치고 즐거워서 마치 헤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퀴디치 게임처럼 흥미진진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수단은 이어 22일에는 한국전문문화고등학교에서 사방치기와 협동게임 등 한국의 전통놀이를 체험하고 전주의 대표 음식인 비빔밥 체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주한옥마을 투어 및 향사예 등 전통문화체험, 남부시장 야시장 투어 등 전주만의 특색을 누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를 방문한 LA 한인회 청소년 대표단과 LA 한인회가 전주를 떠난 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희망하며, 전주시는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자랑스러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기 기자

완산구, 올해 '첫 폭염 대비 살수차' 가동

6-9월 매일 오전 10시부터~오후 4시까지 운영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가 올해 첫 폭염에 맞서 보행자들과 운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살수차를 가동했다.

완산구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33개 주요 간선도로 46km 구간에 살수차 6대를 동원하여 물을 분사해 도심의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살수차 가동은 6월부터 9월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살수차 가동은 도심과 주변 지역의 온도를 낮추는 효과뿐만 아니라 도로의 온도를 낮춰 도로 변형과 차량 타이어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



점이 있다.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폭염에 지친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유기 기자

'전주시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 개최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동 주민센터 실무자 등 150여 명 참석

전주시는 지난 20~21일 부안 변산소노벨 리조트와 고창 선운사 등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 주민센터 실무자·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노인일자리 확대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독려하고 협력 기관과 업무 종사자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일자리사업의 전문성 강화 및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을 꾸준히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효춘 전주시니어클럽연합회장의 개회사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의 축사 △노인일자리 유공자에 대한 시장 표창(8명) 수여 △2025년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북지사의 특강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특강 △

레크리에이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확보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다.

전주시는 이번 워크숍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삼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최고의 노인복지인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유기 기자



전주시는 지난 20~21일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동 주민센터 실무자·담당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노인일자리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참여서점 확대

총 49곳·도서 최대 20% 할인

전주시민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정가의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에 가입한 지역 서점이 49곳으로 늘어났다.

전주시는 지난 21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중화산동 탐의국어사 와 인후동 '책방 툃툃', 중앙동 '시집책방

조림지' 등 지역 서점 3곳과 '2024년도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에 가입한 서점이 기존 46곳에서 49곳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한 서점에서는 오는 7월부터 '책콩20'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렸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